IB 워크숍·연수로 수업혁신 꿈꾸다

전북교육청, IB 인스쿨 워크숍 등 교사 호응속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방학 동안 도내 IB 후보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진행한 IB 인스쿨 워크숍과 IB 연수가 교사들의 호응속에 마무리 됐다고 28일 밝혔다.

인스쿨 워크숍은 학교 요청에 따라 개설되는 IB 공식 워크숍 유형으로, 교원들이 교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업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하는 연수다.

특히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의 인증을 받은 워크숍 리더가 강사로 배정돼 교사들에게 깊이 있는 배움을 제공하고, 학교 맞춤형 컨설팅까지 이뤄졌다.

인스쿨 워크숍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영만초·이백초·덕과초·회현초(이상 IB PYP 초등학교), 함열여중·백산중·지평선중·회현중 등(이상 IB MYP 중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IB 철학과 수업·평가 설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총 2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20일에는 전주교육대학교에서 'IB PYP 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제' 연수가 진행됐다. 이는 지난 6월 IB 후보학교로 승인된 전주부설초등학교가 마련한 연수로, 도내 초등교사 60여 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PYP 탐구 단원 설계 △학생 중심 서논술형 평가 설계 △월드스쿨 수업 사례 분석 등을 다뤘다. 여름방학 중에도 참가자 전원이 15시간의 과정을 끝까지 이수해 IB 프로그램과 수업혁신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여줬다.

민환성 전주부설초 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IB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며 공유하는 역량을 발휘했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중심이 돼 교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수업혁신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위해요소 점검

전북교육청, 내달 2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26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분야 위해요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도청, 시군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인근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공사 현장 등이다.

점검을 통해 보행로 설치, 신호수 배치, 미끄럼방지 매트·안전 펜스 설치, 공사 자재 정리 등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파손된 교통안전시설은 지자체와 협조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부터 하교시간대 단속 사각지대 및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보행로 등의 체계적 현황 관리가 가능해졌다.

/장은성 기자

난치병 학생 지원 인력 역량 강화 연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101호 강의실에서 '2025년 난치병 학생 지원 인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초·중·고교 난치병 학생 지원 인력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는 학교 보건실 관리와 당뇨병 학생의 응급상황 시 조치 등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보건교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응급상황시 조치 방법 등에 대한 실습으로 이뤄져 향후 교육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내년 3월 1일부터 정읍 덕천초 통합 운영

정읍교육지원청은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도학초등학교와 도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내년 3월 1일자로 덕천초등학교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2025학년도 도학초등학교 재학생은 6명, 도학초병설유치원은 0명(휴원)이다.

이에, 정읍교육지원청은 올해 초 도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덕천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일간 통합(폐지)설문을 진행해 도학초등학교 학부모 80%가 찬성하는 등 학교운영위원 및 지역주민이 학교 통폐합에 동의했다.

이어, 도학초(병설유치원 포함)통합(폐지)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통폐합 확정고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JBNU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계약정원제 3자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방산분야 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키운다

20여 방산기업들과 '채용보장형 계약정원제' 석사과정 출범

우주항공 · AI · 첨단바이오 등과 첨단방위산업 연계 인재 양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여 방산기업과 손잡고 국방 및 방산분야 발전을 이끌 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학본부 총장회의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와 국방·방산 분야 상호협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JBNU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계약정원제 3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계약정원제 석사과정의 일환이다. 계약정원제는 기업과의 사전 채용 협약을 바탕으로 2년간의 석사과정을 마치면 해당 기업에 입사하는 채용보장형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에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풍산 F&S,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휴니드 등 K-방산 대표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대는 우주항공,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첨단방위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2학기부터 선발된 20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은 △첨단기술 및 방위산업 교과목 이수 △지도교수 1:1 연구 지도 △1년간의 기업 인턴십 △기업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첨단기술역량과 글로벌 산업정책을 겸비한 K-방산 핵심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 참여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월 80만원의 생활비가 지원돼 기업 인턴십과 프로젝트 수행, 국내외 방산전시회 견학 및 방산기업 현장 견학 등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KAI, 단암시스템즈, 블루비즈 등 12개 주요 방산기업과 '국방·방산 분야 상호협력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20여 방산기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며 "전북대가 K-방산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방산 4대강국'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 PBL로 미래 농업인재 국제 경쟁력 향상

전북대 농생대, 큐슈대 찾아 연구성과 공유… 한 · 일 농업현장 비교 체험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추병길)에서 마련한 '글로벌 PBL(Project-Based Learning)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해외 연구 경험과 국제 협력 가능성을 체감하게 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방학 기간 동안 농업생명과학대학 3~4학년 재학생 11명을 선발해 산림, 작물, 스마트팜, 동물과학 등 4개 분야의 농업 현안을 주제로 문제 해결형 PBL을 수행,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지난 3~8일 일본 큐슈대학교 농학부를 방문해 팀별 영어 발표를 진행, 현지 연구진과 교류했다.

또한 이토시마 지역의 6차 산업화 기업을 견학하며 한·일 농업 현장을 비교·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귀국 후 그간의 연구 및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발표를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HUSS, 중국 연변 탐방… 글로벌 역량 강화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은 경북대, 동국대, 한남대, 한림대 등 5개 대학으로 구성된 지역 컨소시엄 대학과 함께 지난 24~28일 중국 연변 일대에서 '2025 L-HUSS in the World 해외 탐방(연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학생들이 해외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경제 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학생들은 연길 전통시장과 도문 국경지대를 탐방하며 로컬경제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윤동주 생가를 방문해 문학과 지역 정체성의 관계를 고찰했다. 또한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경제 활성화 전략을 토론하는 등 현장 중심의 학습과 성찰을 이어갔다.

탐방 과정에서 5개 대학은 연변대학교 외국어학원과 교육·문화 교류 및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 문서를 교환했다. 협약에는 공동 교육과정 개발, 학술 세미나 및 공동 연구, 교수자·학생 교류, 지역문화 콘텐츠 공동 활용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가 담겼다.

탐방을 마친 학생들은 결과보고서와 시드 영상을 제작해 각 대학에 제출, 이를 통해 컨소시엄 차원의 성과 공유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전주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오는 9월 19~20일 양일간 '한일 전통예술 페스타: 소리, 이야기, 춤'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역 의료기기 기업 시험·인증 기반 마련

전북대, 세포 독성 분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전북대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의료기기 In-Vitro(체외) 용출물 시험을 통한 세포 독성 분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GLP)에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대가 발급하는 비임상시험 보고서는 국내는 물론 미국 FDA 제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북대가 3년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로, 도내 최초 사례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은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 규격으로,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이 GLP 기준을 통해 시험기관을 관리하고 인증한다.

특히 이번 GLP 지정으로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직접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비용·시간 부담이 크게 줄고,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북대는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센터장 손정민)를 설립,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첨단 인프라를 갖췄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센터는 전국 의료기기 기업에도 시험 서비스를 제공, 특히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피지컬 AI 의료기기, 몸에서 녹는 혁신바이오소재 등 차세대 기기의 안전성 검증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책임자인 박찬희 교수(기계설계공학부)는 "향후 전북대는 체외 시험뿐만 아니라 체내 동물실험 GLP 시험 항목까지 확대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가노이드, MPS(Micro Physiological System), 컴퓨터 모델링·시뮬레이션(CM&S) 등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 시험법 연구에도 나서 글로벌 수준의 비임상시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GLP 지정은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비임상시험을 제공해 혁신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장학습 분야 등 청렴문화 조성 '맞손'

전북교육청, 전세버스조합과 협약… 청렴실천 참여기관 인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전세버스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수학여행·수련회·현장학습 운영 전반의 부패 위험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버스조합은 도내 96개 업체에 1,910대 차량을 보유, 각급 학교의 현장학습에 주요 운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박형택 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현장학습 등 운영의 부패 발생 위험요인 발굴·개선 노력 △현장학습 등 운영 전반의 기준·절차 확립과 투명·공정성 제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공동 실천 활동 추진 △그 밖에 양 기관 간 협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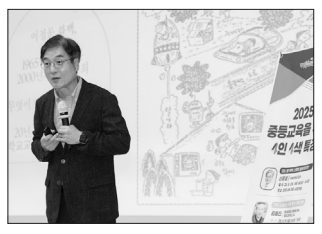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전세버스조합을 청렴실천 참여기관으로 공식 인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청렴 실천 행동수칙을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조합원 전체에 배포하고, 연말에는 우수 사례를 공유해 현장의 자율적 청렴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중등교육 '4인 4색' 특강

11월까지 총 4차례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2층 강당에서 중등 교장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중등교육을 위한 4인 4색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교육현장에서 학력신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초 다지기 차원에서 기획, 11월까지 4차례 운영된다.

첫 강연자로 교육심리학 및 학습동기 분야의 권위자인 신종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신 교수는 '왜 학력신장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단편적인 성적 향상이 아닌, 학생 개별 성장 중심의 학력 개념을 제시하며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되짚었다.

또한 학교 관리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업 설계 및 학습 동기 유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장은성 기자